‘불상 예배’하듯 ‘인간 예배’를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근래 달라이라마가 환생 후계자 문제로 뉴스에 자주 등장한다. 또 다른 이야기인데, 작년으로 기억된다. 달라이라마께서 무릎 치료를 위해 미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머물고 있는 호텔 정문 앞에서 티베트인들(미국 거주)이 오체투지하고 있는 모습이 뉴스로 방영됐다. 어떤 티베트인은 호텔 주변을 돌면서 염주를 돌렸다.

뉴스 영상을 보면서 티베트인들의 불심에 감동했다. 물론 티베트 불교에서는 현 14대 달라이라마를 살아있는 관음의 화신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겠지만, 달라이라마만이 아닌 모든 승려들에게 절을 한다.

하여튼 똑같은 인간에게 순수하게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야 되는 법이다. 인도의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제자 비베카난다도 이런 말을 하였다.

“여러분들이 신(神)이며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한 신의 사원이며, 저는 사찰 내에 있는 상(像)·성전보다도 오히려 여러분들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일한 신은 인간의 몸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모든 중생이 그렇지만 인간이 최고의 사원이며, 타지마할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라는 사원에 있는 신을 보자마자 존경이 앞서게 되고, 그 사람 속에 신을 보자마자, 그 순간에 우리들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진정한 예배는 사찰의 불상, 교회의 예

만인을 예경하는 상불경보살
‘사람=부처’ 담은 법화경 중요
타인 존중해야 나도 존중 받아

수상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뜻이다. 〈법화경〉에 인간에게 예를 올리는 부분이 있다. 제20 ‘상불경보살품’이다. 상불경보살은 비구니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는 반드시 앞으로 부처님처럼 훌륭한 성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예를 올립니다[成佛].”

이 말을 들은 비구들이 꾸짖고, 욕설을 퍼부어도 상불경보살은 한결같이 어느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도망치면서면서도 외친다. 〈법화경〉이 동아시아불교에서 중요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부처’로 본다는 뜻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누구든 동등한 인간이요,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사상에도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간 예배이다. 싯달타 왕자의 출가는 브라마니즘과 카스트제도의 반발로 시작됐다. 부처님은 성불 후 전법을 펼칠 때도 사람은 신분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금수저를 물고 나온 가문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되며, 인격과 행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것이다. 불교는 이렇게 모든 인간이 고귀하다는 점을 기본 테제로 한다.

이제까지 서술한 내용을 문장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겨보자.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푸대접 받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니 자신에 견주어 타인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자. 자신이 대접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남을 대접하자. 자신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다면, 타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자. 자기 자신이 귀하듯이 남도 귀한 법이다.

법당에 모셔진 불상에 예배하듯 진정 살아있는 인간에 예를 올리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자에게 간곡히 하고픈 말일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모순’

세간과 출세간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얼마 전 햄버거를 사러 들어간 패스트푸드점에서 ‘고객 눈높이 맞춤형’이라고 적혀 있고 휠체어 그림이 붙어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기존 기기보다 낮게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나 키 작은 사람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드디어 키오스크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기 시작했구나 싶어 순간 반가움이 앞섰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매장 입구 앞에 턱이 있어 휠체어 사용자는 애초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혹시 다른 출입구가 있나 살펴보았지만, 매장에는 단 하나의 입구뿐이었다. 키오스크는 있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어설픈 선의는 다른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대형마트는 휠체어 전용 쇼핑카트를 준비해 두었지만, 냉장·냉동코너는 단방향 구조로 설계돼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들다. 간신히 들어간다 해도 통로가 좁아 원하는 상품을 고르기 어렵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 이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상점의 출입구 경사로가 45도를 넘어 급경사인 경우가 많고, 출입구에는 경사로가 잘

어설픈 선의로 포장된 시설 많아
장애인 편의는 시혜가 아닌 권리
불교계도 편의시설 전반 관심을

되어 있지만 출입구 문을 들어서면 다시 높은 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사찰에서도 순례를 하다 보면 편의시설의 모순을 왕왕 볼 수 있다. 몇 년 전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 스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며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애인이 법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 주셨다. 그런데 막상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니 법당 앞에는 두 개의 계단이 있었다. 순간 난감했지만 스님께 계단 높이에 맞는 조립식 경사로를 제작해 사용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바른 안목과 올바른 기준으로 존재해야 한다. 설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본질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어야 하고, 좁은 통로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편의시설은 오히려 차별을 심화하는 도구일 뿐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배려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조건이다. 턱없는 출입구, 충분한 이동 동선, 손이 닿는 높이의 진열대와 기기 등 이것들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함께 사는 사회라는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을 향한 배려가 흉내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형식적 설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의 불편을 해소하는 변화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社 說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 韓日불자 나서자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골로 추청되는 뼈가 발견됐다는 낭보가 현해탄을 넘어 전해졌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모임(이하 새기는회)은 8월 25일 오후 2시 9분경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당시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음을 관음종에 알렸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 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난지 8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깨어있는 일본 시민이 중심이 돼 ‘새기는회’를 결성해 1991년부터 위령비 건립과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기는회의 고군분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곳이 한국불교다. 관음종은 2017년부터 조세이탄광 위령재와 유해 발굴 및 송환 사업을 종단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해 발굴을 위한 잠수조사는 새기는회의 시민 모금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이뤄져 왔다. 유해로 추정되는 뼈들이 확인된 만큼 한일 양국은 잠수조사 등 유해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불교도들도 양국의 화합과 자비 실천을 위해 유해 발굴 및 송환에 마음을 모아야 한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의 유해가 돌아오길 바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연대의 출발점 되길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다채로운 법석을 준비했다.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 영역 확장을 위해 전국 교구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 통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된 점에서 더욱 뜻깊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시민과 함께하는 선명상 페스타다. 9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불자들만의 자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참여해 명상과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전국 불자들이 동참하는 선명상 실천대회는 한국불교가 나아갈 미래 백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명상을 통해 개인의 고통을 덜고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통은 우리 불교가 지녀온 보배로운 유산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한 새로운 포교 행사도 눈길을 끈다. 총무원장배 골프대회와 파크골프 대회는 불교가 특정 세대나 한정된 신행 방식에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사회 환경과 생활 문화를 적극 수용하려는 실험이다.

종단과 교구, 지역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신도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는 오늘, 불자들의 실천과 연대는 국민 통합과 행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다. 이번 70주년 법석이 한국불교 중흥을 이끄는 불자 대연대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9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